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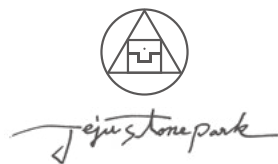


이은희, 한지공예의 멋

Lee Eun-hee, the Beauty of Hanji Paper Art



이은희, 한지공예의 멋
Lee Eun-hee, the Beauty of Hanji Paper Art



인사말

이학승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 관리소장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에서는 <이은희, 한지 공예의 멋> 기획전을 마련하였습니다.

한지공예가이자 종이예술가인 이은희작가는 물을 품은 한지를 수천번 주무르는 줌치기법으로 전혀 다른 질감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통 한지기법에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혼을 가미한 수많은 다양한 작품들을 이번 전시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시인이자 연극 연출가인 Cathy Rapin 교수가 총괄한 작품설치는 색감도 질감도 다양한 한지 작품에 3차원의 힘을 불어넣어 '공간을 살리는 생명의 재료'인 한지의 힘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줌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춤의 순간 -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아는 것'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코로나 19로 잠시 멈춰가는 요즘 한지의 아름다움을 통해 몸과 마음에 휴식과 여유를 담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2020. 7. 17

Greeting and Introduction

Lee Hak-seung

Director, Management Office of Jeju Stone Park

The Obaek Jang-goon Gallery of Jeju Stone Park holds the exhibition <Lee Eun-hee, the Beauty of Hanji Paper Art>.

Lee Eun-hee, an expert in hanji paper and paper art, expresses a wholly different world of texture with the jumchi technique of kneading water-soaked hanji paper thousands of times. This exhibition showcases diverse works created by complementing Korean traditional hanji techniques with her unique artistic soul.

The installation, which was supervised by Cathy Rapin, French professor, poet, and theatrical director, portrays the strength of hanji paper as a 'material of life, vitalizing the space' by imbuing hanji paper works with three-dimensional power through diversity in both color and texture.

Commenting on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jumchi work, the artist says one must know 'the moment of pause, and where to pause.' Amid COVID-19, when we have paused our routines, it is hoped that this exhibition provides you with the opportunity for composure and relaxation for your body and soul through the beauty of hanji paper.

July 7, 2020

나의 삶, 나의 인연... 한지

2020. 초여름에, 好然紙氣房에서
이은희 합장

긴 세월 종이와 하나 된 시간이 꿈속 같습니다. 삼십대에 시작한 한지 작업은 삼십년 세월이 흐르도록 제 곁을 지켜주는 다정한 벗이 되었습니다. 한지쫄기 기법은 ‘손으로 주무르기’ 라는 반복적이고도 원초적인 작업이나, 어느 한계를 넘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멈춤의 때를 알아야만 끝에 다다를 수 있는 행위입니다. 나의 마음속 이야기들이 손끝으로 한지에 스며들면 어느새 한 송이 꽃이, 한 폭의 풍경화가 되었습니다. 막 산산한 어미가 제 어린 것을 보듬듯 깊숙이 품어있던 생각과 꿈을 만지작거리게 됩니다. 나를 감싸던 온갖 번뇌와 망설임, 愛, 모든 것들이 손끝으로 퍼져 한지와 일치가 되는 순간마다, 저 위에 올라 서있는 자만과 허영의 계단을 하나씩 내려 올수 있었습니다.

새하얀 한지에 붉은 홍화 꽃잎을 흩뿌리고, 화산석 송이와 흙으로 한지 섬유에 색을 물들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은 봄날의 꽃처럼 치마폭처럼 피어나기도 하고, 어느 것은 티끌하나 없는 가을 하늘처럼 펼쳐집니다. 혹은 물 기운이 흥건한 늪 주위에 핀 이끼처럼 땅의 기운을 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한소끔 바람이 한지 위를 지나고 나면, 저는 한껏 춤을 추듯 한지와 하나가되어 온갖 나래를 펼칩니다. 이렇듯, 한지 작업은 나의 어머니가 되고 스승이 되어 있습니다.

한지 연구가 故 김경 선생님과 천연염색 연구가 이병찬 선생님의 가르침과 조언은 제게는 한줄기 빛이 되었고, 아직도 무한한 환희를 느끼게 되는 몇몇 작품들은 그날의 감동과 기쁨을 느끼게 해줍니다. 2018년 온양 민속박물관에 소장된 20세기 조선시대의 유삼(油衫비옷)은 태양빛 닳은 빗살무늬를 넣은 쫄기 한지로 복원되었으며, 2019년에 제작된 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제 제관복, 스카프들 또한 빗살무늬의 쫄기 한지로 완성하였습니다.

오늘, 오랜 세월 차곡차곡 쌓여있던 제 마음의 수장고를 내보이려 합니다. 저 깊은 마음의 바다에는 탄생의 기쁨을 노래하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영혼을 불태우던 성장의 과정과 제 짝을 만나 사랑을 나누는 혼인의 가례(嘉禮)가 있고 삶의 미로를 걷는 방향의시간이 있습니다. 마침내 아스라이 지는 해처럼 자연으로 돌아가는 인생과 다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간절히 그리던 그 길 위를 꿈결처럼 걷고 있습니다. 제 앞에 이토록 아름다운 꿈길을 놓아주신 제주돌문화공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인이며 연출가이신 까따라벵 한국외대 불어과 교수님과 속명여대 불문과 명예교수이시며 극단 프랑코포니 임혜경 대표님과 특별한 우정이 없었더라면 감히 이루어 낼 수 없는 작업이었습니다. 또한 가장 가까이에서 필요한 손길을 내어주고 지켜봐준 남편과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지금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영겁의 세월을 지나도 다시 들을 수 없는 단 하나뿐인 소리이고, 이 순간의 전시(展示)는 어느 것보다 담지 않은 유일한 제 모습입니다. 한지 옷 입고 꽃신 신어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제 생의 맺힌 업(業)들을 하나씩 꺼내어 두손으로 주무르는 쫄기작업은 계속 될 것입니다.

My Life, Serendipity... Hanji

In early summer 2020 at 好然紙氣房 (Hoyeonjigibang)

Lee Eun-hee

It seems as if the long time I have been with paper has been a dream. The work with hanji paper that I began in my thirties has become a fond friend that has been with me over 30 years. The hanji jumchi technique is the repetitive and primal work of 'kneading with the hands'. But once a certain limit has been overstepped, everything disappears as well. This is the point that is reached when one knows it's time to pause. When the stories in my heart infiltrate into the hanji paper through my fingertips, they become a flower and a landscape painting. I stroke the thoughts and dreams deep in my heart just like a mother caresses a newborn baby. One by one, I can descend the steps from pretense and vanity once all the anguish, hesitation, love and passion surrounding me have become one with the hanji paper through my fingertips.

I dye hanji fabric by scattering the red petals of safflowers on white hanji and adding volcanic stones and soil. Some then bloom like a girl's skirt in springtime, or others unfold like a cloudless sky in autumn. Alternatively, it is sometimes full of the energy of the earth like moss growing around a swamp full of the energy of water. And, in the moment when the wind blows over the hanji paper, I become one with the hanji and indulge in a flight of fancy as if in a dance. In this way, the work on hanji has become my mother as well as my teacher.

The teaching and advice of the late Kim Gyeong, hanji researcher, and Lee Byeong-chan, natural dyeing researcher, became rays of light to me. Some works still evoke the most exultant feelings and remind me of the impression and joy of that day. In 2018, I restored a Joseon-era raincoat of the 20th century using jumchi hanji having comb-patterns looking like sunlight, and the work is held at Onyang Folk Museum. The robes and scarves for the Seolmundae Halmang ritual at the Jeju Stone Park were also completed with comb-patterned jumchi hanji in 2019.

Today, I am going to open the storage in my heart where I have stored so much over the years. There is a mother in the deep sea of my heart who is singing the joy of birth. In my work, there are stories about the growth period burning the soul, love and marriage, and the time of wandering around a maze. There are also stories about life returning to nature as the sun dimly sets, as well as stories about a life being born again as a new life. These are stories about us all.

I am walking along the path I have sincerely longed for as if in a dream. I sincerely thank all the staff at Jeju Stone Park for planting such a beautiful dream path in front of me. I also extend my heartfelt gratitude to Cathy Rapin, poet, professor in the French Department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director of the Francophonie Theater Company. I also thank IM Hye-gyong, honorable professor at Sookmyung University and representative of the Francophonie Theater Company. Without my special friendship with them, I couldn't have done this work. Additionally, I thank my husband and family for their loving support.

The wind reaching my ears now is heard only once and I will never hear it again even for an eternity, and this exhibition is what I am right now, unlike any other person. I will continue working on jumchi by kneading with my two hands and releasing my life's karma until I go back to where I originate in hanji clothes and flower shoes.

어느 여인의 연금술

까띠 라뵁

한국 외대 불어과 교수, 극단 프랑코포니 상임연출, 시인

이은희, 이 여인의 인생은, 투명함과 불투명함, 두꺼움과 찢어짐 사이에서, 그녀가 만져 만들어내는 한지와 한지 색과 닮았다. 그렇다, 종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노정이다. “죽음” 이라고 불리우는 것 마저도 정지시킬 수 없는 다양한 한지 작품들을 해오면서 그녀는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왜냐하면 이 단계는 끝난 것이 아니고, 아마도 또 다른 삶을 향한 몸과 정신의 새로운 변화일 것이기 때문이다.

수액 가득 찬 나무껍질에서부터 물 품은 섬유질에까지, 태양과 바람 사이에서 그녀가 손으로 쓰다듬고 뒤섞고 짜고, 또 다시 물, 색, 바람으로 종이를 주무르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이 이 같은 요소들과 결합되는 것을 느끼는 일이다. 내가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된 것은 그녀가 새로운 변신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자신의 한지 인생 전체를 전시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이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번 전시는 수많은 동작과 생각의 열매이자, 말없는 한지 한 장 한 장이 내려놓는 삶의 수많은 순간들의 열매이다. 내가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은 겨우 얼마간의 순간일 뿐이지만,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어떤 욕망의 신비를 만들어준 귀중한 순간들을 알고 있다. 그렇다, 십 년 전, 나의 상상을 펼쳐게 만들어주었던 전시를 위해 그녀와 작업을 하면서 내가 가졌던 그 흥분을 다시 느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마치 나뭇잎을 물에 삶으면 나뭇잎의 살과 색이 녹아내려 나중에 나뭇잎 결, 뼈대만 보게 될 때처럼! 내가 그 잎이 된 것 같았고, 내 정신을 벗기는 것 같았고, 나의 본질을 찾기 위해 내 자신이 가벼워지고 있는 중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번 두 번째 만남을 위해서, 나는 이 예술가의 말을 계속 더 들어야했지만 또한 나 자신이 하는 말도 들어야했다. 춤처럼 무대공간 속에서 서로 주고 받는 대화를 만들고 싶었고, 형태를 넘어서 마티에르(재료)와 칼라들을 가지고 놀게 하고 싶었고, 종이 원천에서 나오는 깊은 요소들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바다의 투명한 물거품에서부터 땅, 불, 나무 사이의 두께에 이르기까지 마티에르들의 엄청난 밀도! 나는 또한 화산섬 위에 서 있는 제주도 여자에 대해서도, 그리고 연대기 순은 아니지만 그녀의 작품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도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종이의 시간은 무엇일까 영원한 회귀가 아니라면!

이번 전시를 위해 두려움 정도로 아주 큰 다섯 개의 방이 주어졌다. 이 공간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예술가 작품의 다양하고 웅장한 마티에르들이 이 거대한 공간을 위해 이미 만들어져있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나의 왜소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이 마티에르들을 반죽해야했던 그녀처럼 나도 주어진 무대공간을 반죽하기 위해 내 두 팔이 여러 개 더 생겨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하여 이 다섯 개의 방은 여러 단계로 되어 있다: 여인의 인생, 한지 여인의 인생 노정. 먼저, 첫 번째 방은 비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진귀한 한지 작품과 함께, 비와 바다로 둘러싸인 어린 시절의 공간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방은 나무들이 공모자들이 되어주고, 세상에 눈을 뜨게 해주는 영감의 숲 속에서 어떤 발견과 방향으로 점철된 청춘이 느껴지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방은 자신의 몸, 정열, 고통을 발견하는 성숙한 여인의 공간이 될 것이다. 네 번째 방에서는 상처와 희망의 인생, 미로 속의 인생을 느껴보게 될 것이다. 끝으로 다섯째 방에는 딱딱한 재료를 물에 풀어 주무르고 접고 치대고 해서 반들반들 만들어지는 종이의 삶 속에서, 이 여인은 지금까지 채워왔던 자신의 삶이 윗쪽에서 비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것은 물, 돌, 불로 뿌리 내린 이 땅에서 새로운 마티에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마치 아래로 내려가기보다 하늘로 올라가는 거꾸로 된 모래시계처럼! 이건 단순한 파라독스인가? 아니다. 정신의 희열이 주는 중력의 부재! 우리는 이 같은 다섯 단계를 통해서 어느 여인과 그토록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풍요로운 한지 작품들이 그녀의 변신, 신비로운 연금술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Alchemy of a Woman

Cathy Rapin

Professor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French Department,
Stage Director of Francophonies Theater Company, Poet

As a woman the life of Lee Eun-hee is like her hanji paper and its color, which she touches and creates between transparency and opacity, as well as thickening and tearing. Yes her life is a journey closely related to paper. She has transformed herself bringing together the multiple layers of her life so that even what is called “death” cannot be a stop because this “death step” is not a final layer but one more step, a new transformation of body and mind to another form of life.

As she trims, blends, and wrings the sappy tree bark to soggy fabric with her hands, between the sun and wind, and again kneads the paper with water, color and wind, she feels that her body and mind combine with such elements. This is what I could feel when I heard Lee Eun-hee tell that she wanted to have an exhibition with all the hanji paper works she had created over years before a probably new metamorphosis of her life according to the life of hanji paper.

Therefore, for her, this exhibition is the fruit of numerous movements and thoughts, as well as the fruit of numerous moments of a life in which each sheet of hanji paper has been like an emptying of her life. Though at some moments I have known her, I know that some precious others created a certain mystique of desire. Yes, I wanted to have the same excitement that I felt 10 years ago, when her exhibition, which we collaborated on, made me unfold my imagination. As we see only the leaf texture and frame when we boil leaves in water, and the color and flesh melt, I felt as if I were the leaf, lightening myself to look for my nature.

For this second encounter, I had to listen to the artist, and also to myself. I wanted to create a dialogue, exchanging on stage with each other like a dance, letting viewers play with the materials and colors beyond the formations, and letting them feel the deep elements from the origin of the paper. How

great the density of materials is from the clear foam of the sea to the thickness between earth, fire, and the tree. I also thought that I have to talk about Jeju women on this volcanic island alongside the journey she has taken through her work, though not chronologically. What is the time for paper if it is not eternal
Eternal return!

For this exhibition, we were given five rooms, which are spacious enough to make us feel fearful. How could I bring those spaces to life? Strangely enough, I felt this artist's diverse and magnificent materials were created for such huge spaces. And, despite my insufficient ability, I felt as if I had more arms than just two to knead the given spaces, just as she has kneaded the materials. Therefore, the rooms are displayed in several stages, which represent the life of a woman, the hanji woman's life journey. The first room displays rare hanji paper works to be used as raincoats. This is a space for childhood, surrounded by rain and the sea. The second room is for the adolescent period representing wandering and discovering in the forest of inspiration with trees of co-partners, opening the eyes towards the world. The third room is for a mature woman who discovers her own body, passion, and pain. The fourth room portrays a life of wounds and hopes in a maze. Finally, in the fifth room, the life of this woman is shown to be emptied from above, a life that has been filled in by a life of making glossy hanji paper by dissolving hard materials in water, kneading, folding, and rubbing. It is for new materials to enter the ground rooted with water, stones, and fire. It is like an hourglass in reverse, going up to the sky instead of coming down. Is this simply a paradox? No. This is the absence of gravity, which is obtained by spiritual joy. Through the five stages, we aimed to show that the bountiful hanji paper works closely connected to the artist are literally her transformation, that is, her mystical alchemy.

순간의 멈춤과 울림

이은희 작가의 한지 예술

임혜경

숙명여대 불문과 명예교수, 연극평론가, 극단 프랑코포니 대표

이번 전시는 그동안 국내는 물론이고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등 해외로 우리나라 한지 줌치의 미를 알려온 이은희작가의 30여년의 긴 작업 여정을 아낌없이 보여주는 대규모 전시회이다. 긴 세월을 씬 없이 작업해온 이은희작가의 다양한 작품들은 작가 자신도 놀랄 만큼 그 수가 엄청나다. 제관복, 우비, 가사와 법의, 남녀 한복, 수의, 잠녀복, 갈옷, 주머니, 안경집, 지갑 등의 중요한 전통 재현 작품을 위시한 사실적인 작품들도 많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유롭게 현대적으로 표현한 수많은 작품들은 그야말로 추상 회화의 세계를 보여준다. 전통적이건 현대적이건 작품들은 그냥 어디에 놓거나 걸쳐놓기만 해도 그 존재감 자체로 어떤 신비스런 분위기를 만들며 빈 공간을 장악한다. 이렇게 맥이 끊길 뻔한 전통 한지 공예기법과 현대적인 추상 작업을 치열하게 해오며 오롯이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해온 한지 줌치 공예가, 종이 예술가 이은희작가가 오랜만에 자신의 작품 수장고를 아낌없이 열었다.

한국 종이의 미술세계의 가능성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작가의 작품 한 점 한 점은 모두에게 탄성을 자아내게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이 오랜 세월 켜켜히 쌓여있는 작품들을 빛나게 할 전시는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요하다. 이번 전시의 특이점이라면, 10년 전,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개관전에 참가한 이은희작가전에서 이미 함께 협업한 바 있는 까띠 라뵁(Cathy Rapin, 한국외대 불어과 교수, 극단 프랑코포니 상임연출, 시인)이 이번에도 전시 설치 연출을 맡았다는 점이다. 한국인 예술가와 프랑스인 연출가의 이색적인 콜라보레이션 향연이 될 것이다. 프랑스인 연출가는 30년 줌치 작업을 총결산 하는 이작가의 깊고 진중한 작업의 궤적을 그 넓은 전시 공간에 무거운 액자로만 걸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미 작품 자체가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 무게와 깊이가 느껴지는 것을 또 이중어법의 반복적인 언어로 다지고 또 다져 무겁게 강조할 일이 아니라고 파악한다. 그 반대로 작가가 끊임없이 주무르고 멈추고 움직인 그 운동성을 바탕으로, 종이라는 기본 마티에르(재료)의 가벼움을 유희 삼아 바람도 들어가게 해 팔랑거리게도 하고, 빛도 넣어 투명하게 비추게도 하고 해서, 집도 되고, 하늘도 되고, 구름도 되고, 비도 되고, 숲도 되고, 미로도 되는... 익숙하지 않은 길에서의 뜻밖의 조우, 다시 말해 다른 언어와의 만남, 그 마찰이 만들어내는 역동성, 환상성, 유머, 아이러니, 시(poésie)와 철학이 있는 설치 예술을 지향한다. 한지로 이러한 예술 경지에 오른 한 인간의 인생을 그가 평생 주물러 온 한지의 일생과 환치시켜보는 다각적이고도 다채로운 작업이 되지 않을까?

이 작가 작업을 한 마디로 정의 내리는 “쫄치 기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작가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두 겹의 한지를 물만으로 붙이는 방법으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착시키고 주물러 아주 강하게 만드는 기법이다. 닥종이로 만든 한지를 몇 시간동안 물 속에 담가 주무르고 치고 두들기다 보면 닥의 섬유질이 아름다워지고 광목처럼 질긴 성질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여러 장으로 한지를 겹치게 되면 가죽만큼 질겨진다. 부드러움과 강함을 모두 갖춘 우리나라 고유의 한지 공예 기법이다”. 또한 “물에 잠긴 한지를 다루는 손질 방법의 하나로,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주무르는 행위를 말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이지만 성실한 시간의 흐름과 간절한 기원과 기(氣)를 담은 내공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쫄치 작업 자체를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수행 과정으로 인식하는 이은희 작가의 작가 의식을 쫓아 긴 동굴 같은 작품 세계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면, 작가의 손에 의해 종이의 원초적인 질료성을 되찾은 덩어리가 한없이 펼쳐지는 과정이 보인다. 한지를 뜨고 말려서 염색과 발색 과정을 거쳐 모시처럼 고운, 잠자리 날개보다 얇은, 한지의 마지막 모습, 거미줄처럼 끊어질 듯 말 듯한 성긴 결에 입김을 불어넣는다. 바람이 들어간다. 흔들린다. 이슬이 맺힌다.

이렇듯 모든 작품은 울림이 있어야하고, 순간의 멈춤과 울림이 있어야한다고 작가는 생각한다. 작품은 더도 덜도 아닌 어느 한 순간의 멈춤에서 만들어진다. 어디서 멈춰야하는지는 작가만이 안다. 다 만들어진 작품에 울림이 없다면 기교 뿐이다. 작가는 한지를 보면 벌써 울림을 느낀다고 한다. 그 울림을 품은 한지를 주물러 해체시켜 자신을 비우고 정화시키며 자기만의 울림으로, 공명이 되도록 옮긴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이은희 작가와 시인이기도 한 까띠 라뽕 연출가가 협업하는 이 독특한 만남이 만들어내는 이번 전시의 주제는 예술가의 일생, 여성의 일생, 인간의 일생으로 확대시켜 볼 수 있다. 그러한 주제를 단계별로 구성한 5개의 방에서 작가의 다양한 작품 세계가 유감없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섬세한 눈을 가진 관객은 첫 번째 방에서 어린 시절, 유년 놀이, 두 번째 방에서 청소년기, 만남, 타인, 사랑, 세 번째 방에서 성인, 결혼, 성, 네 번째 방에서 고통, 미로, 다섯째 방에서 죽음, 초월, 다시 태어남 같은 테마들을 엿볼 수도 있겠지만, 상관없이 각자 자유롭게 느끼면 될 일이다. 이 전시는 특별한 어느 한 예술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우리 인간 모두의 삶의 보편성을 획득한 아름다운 예술 세계의 진수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Pause and Resonance of a Moment

Artist Lee Eun-hee's Hanji paper art

IM Hye-gyong

Honorary Professor of Sookmyung University, Drama Critic,
Director of Francophonies Theater Company

Artist Lee Eun-hee has publicized the beauty of Korean hanji paper art called 'jumchi (paper felting)' to not only domestic but also foreign countries such as Japan,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for over 30 years. This exhibition shows her long journey of artwork on a large scale. Her diverse works are so large that even she is often amazed. There are works reproducing important traditional items such as costumes for rituals, raincoats, sacerdotal robes, male and female Korean traditional clothes, shrouds, haenyeo women diver clothes, persimmon-dyed clothes, pouches, eyeglass cases, and wallet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other numerous works created freely with modern style, which show the world of abstract paintings. Traditional or modern, wherever they are placed, her works create a certain mystique that dominates the space. Moreover, hanji artist Lee Eun-hee has created a vast collection of works of a tradition that was nearly cut off from contemporary interpretation. Now, this exhibition spotlights her complete works.

The artist's varied works have shown off the possibilities of Korean hanji, thereby garnering admiration from Korean and others overseas. As the proverb says, "Nothing is complete unless you put it in final shape." In this case, Lee has collaborated with Cathy Rapin (professor of French,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nd standing director of Francophonie Theater Company) in order to ensure an outstanding exhibition. Both collaborated 10 years ago when Lee participated in the opening exhibition of Obeak Jang-Goon Gallery at Jeju Stone Park. But this occasion marks something quite unique because the French director is intent on spotlighting Lee's works in a simple and unconventional way, trusting that the works by themselves will reveal its true weight and depth. Based on the nature of the material and the artist's kneading (or felting) and shaping the paper, her works are like play. Her installations suggest the feelings of a house, the sky, clouds, rain, forest and a maze. A breeze makes the works flutter and allows light to shine through the transparent areas. Viewers thereby engage in an encounter on an unfamiliar path with another language. One feels the energy, experiences fantasy, humor and irony, which are generated by the friction between art, poetry and philosophy. The director's vision, therefore, has been to not only spotlight the artist's works, but to honor the duration of hanji paper that Lee has kneaded all her life.

What is the “jumchi technique?” According to the artist’s explanation: “It is the technique of felting or sticking two sheets of hanji paper together only with water. Then, bonding them together by strongly kneading out the air. As the hanji paper is soaked in water, kneaded and pounded numerous times with bare hands, the fiber eventually becomes fused and strong like cotton cloth and even as strong as leather. This unique Korean craft technique embodies both softness and strength.” In addition, “This way of treating soaked hanji paper, creates a primal and instinctive kneading activity. It looks like the simplest and repeated work, but it requires endurance, sincere time, earnest longing, and energy.” When we are invited into her world of creative consciousness, we can appreciate the primal substance of hanji through the artist’s hands unfolding endlessly. Through the process of knitting, drying, dyeing, and coloring hanji paper, the last shape of hanji is beautiful like ramie fabric or thinner than a dragonfly wing. Then the artist blows into the fine texture looking as if it is about to break like a spiderweb. Wind blows. Dewdrops form.

The artist believes that each work requires pause and resonance of the moment. Works are created at the moment of pause, neither more nor less than that. Only the artist knows when to pause. If there is no resonance in the completed work, it is simply an example of technical skill. The artist says she feels echoes when she works with hanji paper. She transforms hanji paper bearing in mind that the echo must have its own resonance by dismantling, emptying and purifying the work through kneading and felting,

Therefore, the theme of this exhibition, which is a unique collaboration between artist Lee Eun-hee and poet Cathy Rapin, can be expanded to a life of an artist, a life of a woman, and a life of a human being. In the five rooms that have been designed according to the theme, the artist’s diverse art world is unfolded in its fullness. If viewers have a delicate sense, they can see different themes in each room such as childhood play in the first room; encounters, love, and the others of an adolescent period in the second room; adulthood and marriage in the third room; pain and a maze in the fourth room; and death, transcendence, and rebirth in the fifth room. However, viewers are encouraged to simply feel as they feel. This exhibition hopefully will show the essence of beautiful hanji art, which has acquired universality of human life beyond the dimension of an individual artist.

이은희, 한지공예의 멋
Lee Eun-hee, the Beauty of Hanji Paper Art

설치: 까띠 라뵁
Installation: Cathy Rapin

사진: 오권준
Photo by Oh Gwonj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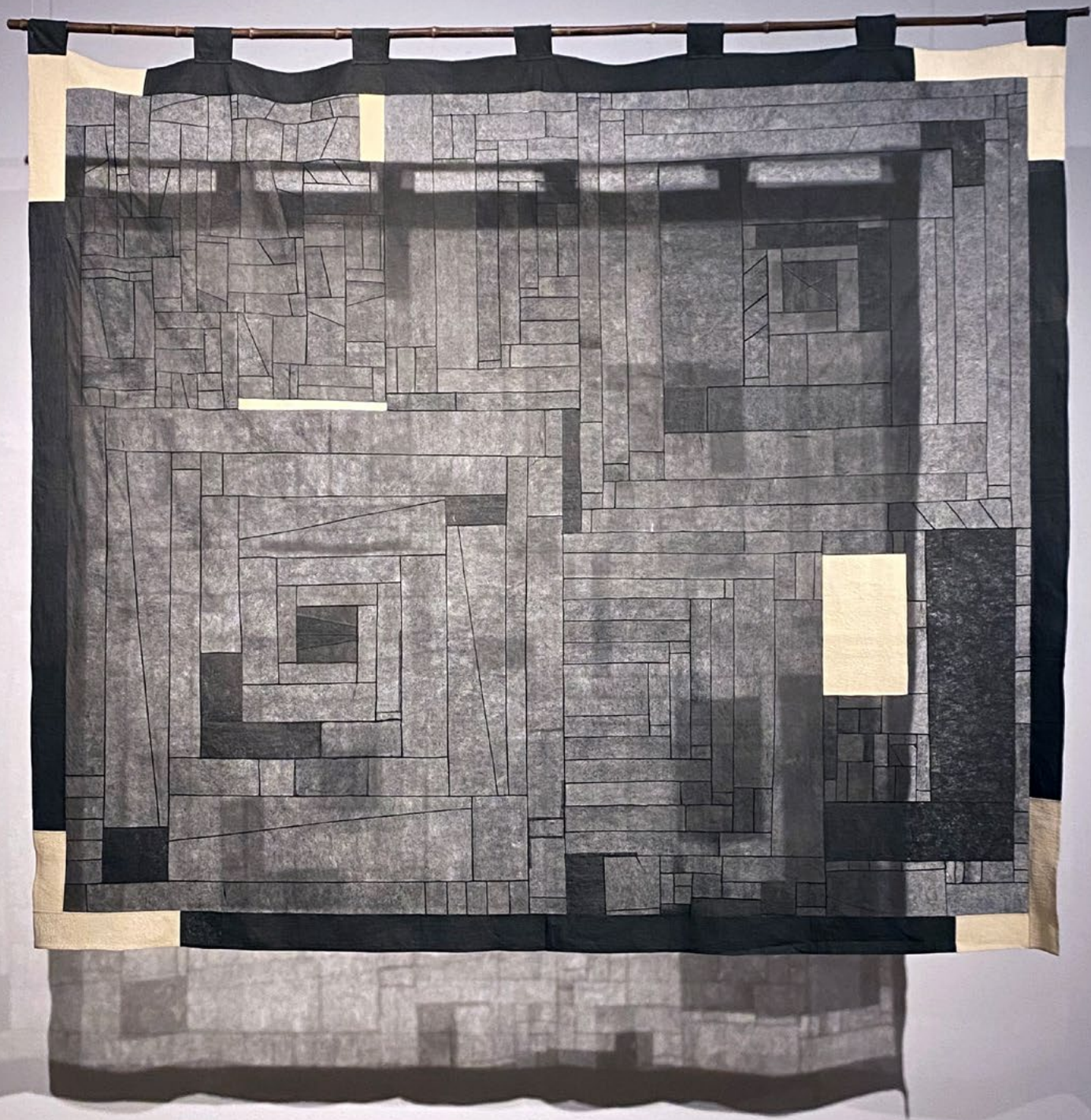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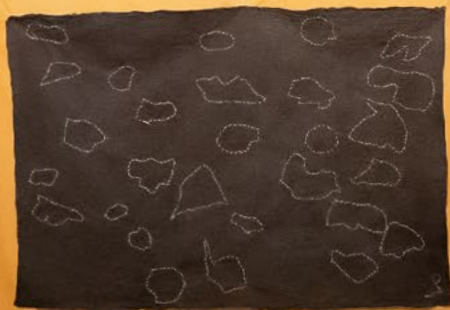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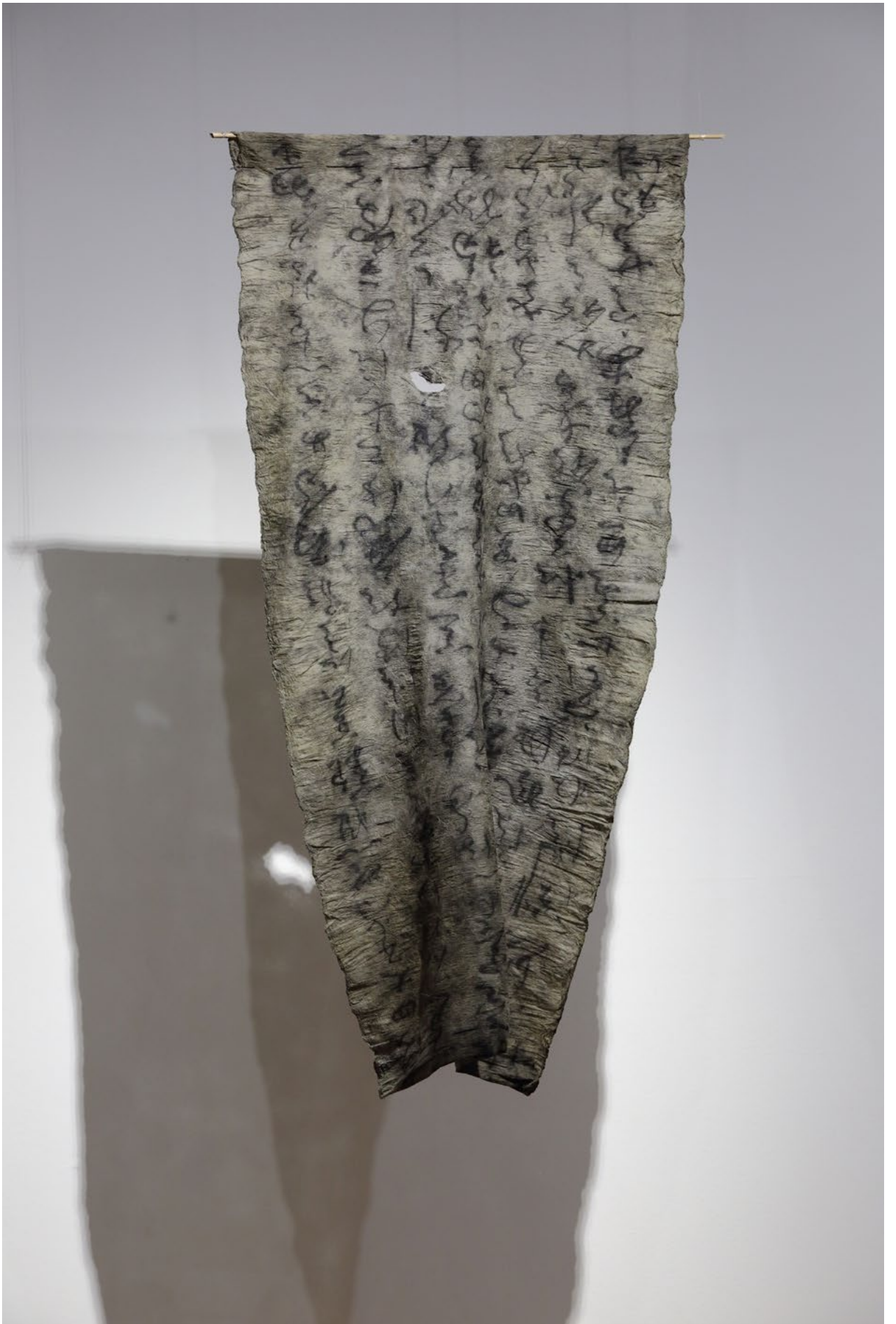












Vertical columns of Korean text on aged paper, likely a manuscript or historical document. The text is densely packed and includes various characters and symbols, possibly representing a list or a detailed record. The paper shows signs of wear, including discoloration and some damage.

터니
護念
공은
발

尊
이

이
무
라

시
이

이
이

그
무
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Fragment of an ancient papyrus scroll containing dense, handwritten text in a cursive script, likely from the Dead Sea Scrolls. The text is arranged in multiple columns and is heavily faded and partially obscured by the scroll's texture and damage. The script is a form of Hebrew or Aramaic, characteristic of the Qumran documents. The fragment shows several lines of text, with some words appearing to be in larger or bolder characters, possibly indicating a section header or a specific name. The overall appearance is that of a well-preserved but aged and damaged piece of ancient parchment or papyrus.







이은희

한지예술가,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 회원
1955 제주 출생



전시

- 1995 프랑스 파리 <The Art World of Korean Paper>초대전
95' 부산 한지 예술전. 국제문화회관
- 1996 독일 베를린 ufaFabrik <The Art World of Korean Paper>초대전.
- 1997 미국 하와이대학교 <The Art World of Korean Paper>초대전
- 1999 일본 동경 갤러리 <The Art World of Korean Paper>초대전
- 2000 제주 아트 <바람이 부는 봄> 우리 종이 의상전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전시 <벽걸이 1,2>
- 2001 국립제주박물관 개관 유물 '대동여지도' 탁본 작업
제21회 한국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 전통공예명품전
- 2002 LG패션플라자 <우리 종이 의상전>
일본 나고야 아이치현 초목비엔날레 전시 <탐라>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전시 <귀주머니>
- 2003 청주 공예비엔날레 전시 <감물조각보>
- 2003~11 탐라무문 갤러리 운지관 전시 <닥나무 뿌리나라다>
- 2004 일본 나고야 아이치현 초목비엔날레 전시 <탐라 잠녀복>
- 2005 일본 아이치현 만국박람회 초대시연 및 작품전시 <환희>
일본 오카자키 센토미술관 초대전시 <춤 오배자>
- 2006 세종문화회관 '최종희 타악기 연주회' 가리개 설치 작품전시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전시 <일향 1>
일본 나고야 아이치현 초목비엔날레 전시 <일향 2>
- 2008 제28회 한국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 전통공예명품전 서울, 강릉
제5회 일본 나고야 아이치현 초목비엔날레 심사 및 초대전시 <紙千年 I>
- 2010 제6회 일본 나고야 아이치현 초목비엔날레 초대전시 <眞如>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개관 기획초대전시 <물,쇠,나무,흙,돌>
교토문화박물관 전시 <The Sheep Palette Kyoto>
스페이스 갤러리 전시 <The Sheep Palette Kyoto>
- 2012 제7회 일본 나고야 아이치현 초목비엔날레 초대전시 <平常心>
- 2013 서울 길상사 <봄날의 발견> 초대 전시
- 2014 제8회 일본 나고야 아이치현 초목비엔날레 초대전시 <반야심경>
- 2016 제36회 한국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존협회 전통공예명품전 <紙千年 II>
- 2018 (사)국가무형문화재 전시 <한지 감물비웃>
- 2019 제주돌문화공원 설문대할망제 제관복 제작
- 2020 제주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기획전 <이은희, 한지공예의 멋>

수상

- 2000 제25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한국문화재보호재단특별상, 입선 <벽걸이>
- 2002 제2회 일본 나고야 아이치현 초목비엔날레 가작 <탐라>
제27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장려상 <귀주머니>
- 2003 제3회 청주공예비엔날레 입선 <감물조각>
- 2004 제3회 일본 나고야 아이치현 초목비엔날레 가작 <탐라잠녀>
- 2006 제31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장려공로상 <일향 I>
제4회 일본 나고야 아이치현 초목비엔날레 준대상 <일향 II>
- 2018 제43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입선 <한지 감물 비웃>

소장

- 2007 충남 영평사, 전남 무문암
- 2008 독일 Kölner Str.65 53902 Bad Münstereifel
- 2011 김해 대법륜사
- 2012 교토 문화박물관
- 2013 부산 미소원
- 2014 서울 길상사
- 2018 논산 영선사

Lee Eun-hee

Paper artist, member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1955 Born in Jeju

Exhibitions

- 1995 Invitation Exhibition: The Art World of Korean Paper, Paris, France
'95 Busan Hanji Paper Art Exhibition, International Culture Center
- 1996 Invitation Exhibition: The Art World of Korean Paper, ufaFabrik, Berlin, Germany
- 1997 Invitation Exhibition: The Art World of Korean Paper, University of Hawaii, USA
- 1999 Invitation Exhibition: The Art World of Korean Paper, Tokyo Gallery, Japan
- 2000 Paper Clothes Exhibition: Windy Spring, Jeju Art
Korea Annual Traditional Handicraft Art Exhibition: Wall-hanging 1, 2
- 2001 Jeju National Museum Opening Commemoration: Daedong-yeojido rubbings
The 21st Kore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ditional Handicraft Exhibition
- 2002 Korean Paper Clothes Exhibition, LG Fashion Plaza
Tamna: Aichi Vegetation Biennale, Nagoya, Japan
Korea Annual Traditional Handicraft Art Exhibition: Gwijumeoni (Ornamental Good Luck Pouch)
- 2003~2011 Mulberry Paper Taking Roots, Unjigwan, Tamna Mumun Gallery
- 2003 Cheong-ju Handicraft Biennale: Persimmon-dyed Jogakbo (Patchwork Wrapping Cloth)
- 2004 Tamna Haenyeo Clothes: Aichi Vegetation Biennale, Nagoya, Japan
- 2005 Joy: Invitation Demonstration and Exhibition, Aichi International Exposition, Japan
Invitation Exhibition: Jumchi Obaeja, Okazaki Sento Museum of Art
- 2006 Screen Installation Exhibition for Choi Jong-hee Percussion Concert, Sejong Culture Center
Fragrance 1: Korea Annual Traditional Handicraft Art Exhibition
Fragrance 2: Aichi Vegetation Biennale, Nagoya, Japan
- 2008 The 28th Masterpieces of Traditional Craft Exhibition, Seoul, Gangneung
Invitation Exhibiton: 紙千年 I (Thousand Years of Paper), the 5th Aichi Vegetation Biennale, Nagoya, Japan
- 2010 Invitation Exhibition: 眞如 (Absolute Truth), the 6th Aichi Vegetation Biennale, Nagoya, Japan
Water-Iron-Wood-Soil-Stone: Invitation Exhibition for the Jeju Stone Park Obaek Jang-Goon Gallery Opening
The Sheep Palette Kyoto, Kyoto Culture Museum
The Sheep Palette Kyoto, Space Gallery
- 2012 Invitation Exhibiton: 平常心 (Ordinary Mind), the 7th Aichi Vegetation Biennale, Nagoya, Japan
- 2013 Invitation Exhibition: Discovery of Spring Days, Gilsangsa Temple, Seoul
- 2014 Invitation Exhibition: Prajna-Paramita-Sutra, the 8th Aichi Vegetation Biennale, Nagoya, Japan
- 2016 紙千年 II, The 36th Masterpieces of Traditional Craft Exhibition, Korean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 2018 Hanji Persimmon-dyed Raincoat Exhibition,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ssociation
- 2019 Costume design for Jeju Stone Park Seolmundae Halmang Ritual

Awards

- 2000 <Wall-hanging> selected by the 25th Korea Annual Traditional Handicraft Art Exhibition as a special prize from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 2002 <Tamna>, honorable mention at the 2nd Aichi Vegetation Biennale, Nagoya, Japan
<Gwijumeoni>, participation award at the 27th Korea Annual Traditional Handicraft Art Exhibition
- 2003 <Persimmon-dyed Jogakbo Wrapping Cloth> selected by the 3rd Cheong-ju Handicraft Biennale
- 2004 <Tamna Haenyeo>, honorable mention at the 3rd Aichi Vegetation Biennale, Nagoya, Japan
- 2006 <Fragrance I>, participation and achievement award at the 31st Korea Annual Traditional Handicraft Art Exhibition
<Fragrance II>, second grand prize at the 4th Aichi Vegetation Biennale, Nagoya, Japan
- 2018 <Hanji Persimmon-dyed Raincoat> selected by the 43th Korea Annual Traditional Handicraft Art Exhibition

Collections

- 2007 Yeongpyeongsa Temple, Chungnam, Mumunam Temple, Jeonnam
- 2008 Kölner Str.65 53902 Bad Münstereifel, Germany
- 2011 Daebeobryunsa Temple, Kimhae
- 2012 Kyoto Culture Museum
- 2013 Misowon, Busan
- 2014 Kilsangsa Temple, Seoul
- 2018 Yeongseonsa Temple, Nonsan

이은희, 한지공예의 멋

설치: 까띠 라뻡

발행인 이학승(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 관리소장)

총괄기획 백운철

기획·편집 문병혁, 고순옥, 김수환 디자인 권일준

평론 임혜경 번역 제주스타컴

사진 오권준

행정운영 이병택(운영과장), 김예삼(운영팀장)

학예지원 김아영, 김현경, 고범석 전시지원 김성남, 김태화, 고현주

인쇄 하나출판

발행일 2020년 8월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연락처 돌문화공원관리소 064-710-7731 총괄기획단 064-784-7311

홈페이지 www.jeu.go.kr/jejustonepark

Lee Eun-hee, The Beauty of Hanji Paper Art

Installation: Cathy Rapin

Publisher Lee Hak-seung(Director, Jeju Stone Park)

General Planning Paek Uncheol

Edited Mun Byeonghyeok, Koh Sunok, Kim Suhwan Designed by Kwon Iljun

Critique, Commentary IM Hye-gyong Translated by Jejustarcom

Photo by Oh Gwonjoon

Administration Lee Byeongtaek, Kim Yeasam

Support of curated by Kim A-young, Kim Hyeon-kyong, Koh Bumseok

Supported by Kim Sungnam, Kim Tae-hwa, Koh Hyun-joo

Printing Co. Hana Print

Issue August 2020

Published by Jeju Ston Park

Address 2023, Namjo-ro, Jocheon-eup, Jeju-si, Jeju-do, Republic of Korea

Contact Point Office 82-64-710-7731 General Planning Team 82-64-784-7311

Homepage www.jeu.go.kr/jejustonepark

발간등록번호 79-6500656-000024-01

ISBN 978-89-94704-62-3

© 2020 제주돌문화공원 Jeju Stone Park

* 이 책에 수록된 글과 사진은 저작권자의 서면 허가없이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제할 수 없습니다.

* No part of this catalogue may be reproduced or used in any form permission from the Jeju Stone Park.





발간등록번호
79-6500656-000024-01



Jeju Stone Park